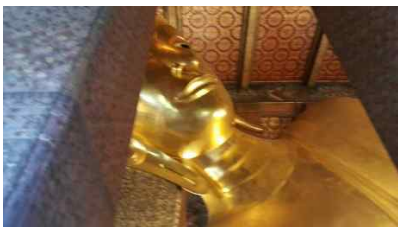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우리가 '태국'하면 떠올리는 것들은 무엇인가. 아마 화려하고 붉은 안장을 차고 있는 코끼리, 고약한 냄새와 상반되는 독특한 맛을 가진 두리안, 반짝이는 옷을 입고 춤을 보여주는 트랜스 젠더들, 안락하고 편안한 기분이 드는 타이 마사지 정도일 것이다. 이것들은 태국의 대표적인 문화이자 상징물이지만 어쩌면 다소 피상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다. 나는 태국에 관해 피상적으로 알기보다 더욱 깊고 자세하게 알기를 원했다. 현지인들의 생활방식과 대학생들의 공부하는 방식, 태국인들 특유의 성격과 행동방식, 그들이 주로 먹는 음식 등 직접 태국으로 가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점들 말이다. 또한 나는 평소에 유럽, 아메리카 문화보다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시아 문화는 유럽, 아메리카 보다 시각적으로는 덜 화려하지만 특유의 단아하고 우아한, 마치 '달'같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국은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시아'의 특징과 매력과는 다소 달랐다. 사진으로 접한 태국의 왕궁과 사원들은 은은한 '달'보다는 '태양'처럼 붉은 빛과 금 빛이 흩날리며 화려하고도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그들의 화려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또한 그 화려함을 직접 마주했을 때, 무슨 기분이 들지 말이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소하기에 국제학부에서 주최한 동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비교적 적합했다. 일단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신분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태국에 갈 수 있었다는 점은 물론이고, 개인여행으로는 체험하기 힘든 태국 현지 대학생과의 토론부터 여행에 같이 동행하신 교수님들이 전해주시는 '태국에 관한 꿀상식'까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들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태국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 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웅장하고 거대한 태국의 건축물



'왓 포' 사원은 우리가 태국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사원이다.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방콕보다도 더 오래되었다고 한다. '왓 포' 사원은 내가 생각한 태국 사원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부합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한 휘황찬란했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붉은 빛과 금 빛으로 무장된 사원이 눈에 들어왔다. 지붕에 정교하게 조각된 문양과 그 지붕들을 받쳐주는 큰 기둥들이 사원의 웅장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한 사원 내부 곳곳에 세워진 소형 불탑들이 인상 깊었는데, 이러한 탑들을 체디(chedi)라고 부른다고 한다. 나는 이 체디들이 단순히 사원의 빈 곳을 채워 주기 위한 용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왕족의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의미 있는 불탑이라고 한다. 사원의 내부로 들어가니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장소가 있었다. 그 곳은 바로 왓 포 사원에서 가장 유명한 '와불상'이 있는 장소였다. 와불상은 태국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열반에 든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고 한다. 그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전신을 가볍게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5분 정도가 소요된 것 같다. 와불상을 보고 나서 사원을 전체적으로 한바퀴 둘러보았는데 사원 뒷 쪽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진심으로, 또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태국 사람들을 보면서 태국 사람들의 부처를 향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존경심은 기도만이 아니라 세밀하고 정교하게 건축된 왓 포 사원 안에서 도 여실히 드러났다.



'왓 마하탓'은 가히 내가 태국에서 봤던 사원 중에 가장 멋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버마로부터 침입으로 인한 화재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이 훼손되고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의 장관을 펼치고 있었다. '왓 마하탓'은 위의 '왓 포'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를 뽐내고 있었다. '왓 포'가 강렬하고 화려한 독버섯이라면 '왓 마하탓'은 고풍스러운 느낌의 송이버섯이었다. (그렇다고 '왓 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웅장함을 자랑했던 사원 위 거대한 옥수수들이 사라진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갈색 벽돌과 검은 그을림, 새로 남은 흔적들...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 특유의 분위기를 뽐내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해냈다. '왓 마하탓'을 둘러보다 보면 목 없는 불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불상들의 목은 침입 당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베어버렸다고 한다. 일렬로 나열 되어있는 목 없는 불상들을 보면 어쩌면 누군가는 섬찟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불상에서 드러

나는 당시의 참혹함과 아유타야 사람들의 절망을 느껴보면, 슬픔과 애달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예사일일 것이다.



'방파인 여름 별궁'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태국 왕족들 부럽다.' 였다. '방파인'이라는 작은 섬에 세워진 왕궁은 그야말로 어렸을 적 만화에서 보던 공주님이 사는 성을 보는 기분이었다. 당시의 왕이 유럽여행을 갔다가 유럽의 건축물에 반해 지었다는 여름 별궁은 흰색의 유럽풍 건축물이 호기롭게 서있어 마치 유럽의 성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완전한 유럽의 성은 아니었다. 태국식 사원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이질적이나 묘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여름 별궁은 말그대로 아유타야 시대에 왕들의 별장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가능이 갔다. 그 곳의 분위기는 정말 평화로웠고 한적했다. 곳곳에 강물이 흐르고, 산책로와 정원이 매우 잘 구성되어 있었으며, 건축물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단조롭지 않았다. 왕족들이 피로한 업무를 마치고 쉴 수 있는 휴양지로는 적격이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예전에 일본과 대만에 방문했을 때, 내가 들었던 생각은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 였다. 어디서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은 못됐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 그것보단 조금 큰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붐비고 맛집은 항상 줄이 길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태국도 우리와 생활면에서 별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는 맞았고 어느 정도는 틀렸다.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탐마삿 대학교 학생들과 특정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인 6명과 태국인 2명으로 팀이 구성되었는데, 우리 팀은 서로 낯을 가리고 영어라는 허들이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했다. 재미있던 점은 우리가 태국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답변을 해주는 데 10분이 걸렸는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아 친근감을 느꼈다. 첫번째 주제는 태국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는 것이었고 두번째 주제는 아시아 협력에 대한 찬반 여부와 협력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두번째 주제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어 제대로 토론하지 못하였는데 첫번째 주제는 태국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댓말이 존재한다는 것 등 말이다. 또한 태국 대학교에는 우리 나라와 다르게 교복이 있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복을 자기 마음대로 줄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을 마치고 태국의 현지식을 먹었다. 전날에는 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조금 힘들었는데 탐마삿 대학교에서 먹은 현지식은 한국의 닭볶음탕과 비슷한 음식이 있어서 맛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탐마삿 대학교 탐방을 했다. 탐마삿 대학교는 매우 넓어서 학교내에 스쿨버스가 있는데 우리는 이 스쿨버스를 타고 탐마삿 대학교를 구경했다. 학교는 정말로 크고 아름다웠다. 마치 박물관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탐마삿 대학교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서 교환학생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3박 5일동안 우리는 수상보트를 세번이나 탔다. 무슨 보트를 세 번씩이나 타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트 타는 것은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한다. 처음으로 보트를 탔던 곳은 메콩강이었다. 강물을 가로지르면서 양 옆으로 나열된 태국의 집들과, 호텔들, 그리고 식당 등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강에는 메기처럼 생긴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식빵을 던져주니 입을 빼꼼거리며 먹었다. 또한 수상가옥도 볼 수 있었는데 교과서에서만 보던 광경이라 매우 신기했다. 수상가옥은 목재로 지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오래된 가옥이라 그런지 낡고 조금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강물과 어우러지는 것을 보니 멋있었다. 보트를 탔던 세 번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았던 것은 수상시장에서 탄 보트였다. 보트가 마치 놀이공원에서 타는 후름라이드 보트 같아서 놀이공원에 온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보트를 타는 초반에는 역시 수상가옥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곳에서는 1층과 2층이 나누어져 있었다. 대부분 1층을 비워 두고 닭과 같은 가축을 기른다고 한다. 2층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다들 정말 여유로워 보였다. 태국 사람들은 돈보다는 일상의 여유와 휴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그러한 생활태도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중반부로 진입하니 시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나는 강의 양 쪽에서만 물건을 파는 줄 알았는데 배 위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였다. 시장 안에서 배가 부딪힐 것 같으면 서로 배를 밀어주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정겨워 보였다. 수상보트를 탐으로써 태국 사람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더욱 흥미로웠고 유익했다. 특히 강물 위에서 시장을 구경하며 망고 스티프와 두리안을 먹었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태국을 방문한 뒤 느낀 점은 관광산업 방면으로 이름을 떨칠 만 하다는 것이다. 왕궁과 사원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관광객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카오산 로드는 활기가 느껴졌다. 수상시장과 매끌링 시장은 참신하면서도 정감이 갔다. 태국의 관광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진다고 하던데 미래가 기대가 된다. 또 다른 느낀 점은 태국의 상징물은 화려하지만 태국인은 소박하고 단아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여유로움과 느긋함을 즐길 줄 안다. 한국은 바쁘게 살아야 좋은 삶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국은 미래를 중요시 여기고 태국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미래보다 현재의 소중함을 더욱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태국의 대학생생활, 생활방식, 그들의 삶의 태도 등 다양한 것을 알게 되었고 태국인들에게 사원과 왕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깨달았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태국에 대한 고정된 시각과 인식을 바꾸어 주었으며 내년에 있을 하게 프로그램에도 또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사실 처음으로 대학교 사람들과 가는 해외여행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다. 아는 사람도 없고 e-비즈니스과는 나 혼자 뿐인 데다가 성격이 그리 외향적인 편도 아니라 걱정은 더욱 커졌다. 태국에 대한 관심 하나로 호기롭게 신청한 프로그램이지만 막상 당일일이 되니 긴장과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태국에 도착하니 긴장은 풀어졌고 걱정도 사라졌다. 태국의 날씨는 너무나도 맑았고 낮선 곳에 왔다는 설렘 때문인지 기분도 좋아졌다. 더욱이 좋은 사람들과 친해져서 하루가 지날수록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날에는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아쉽기까지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국에서의 생활은 여유로웠고 행복했다. 수상보트와 태국 대학생과의 만남, 기차길 주변에 형성된 매끌링 시장과 불꽃놀이가 예뻐던 아시안 테크 등 단체활동도 너무 유익했지만 일정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소사로운 일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처음으로 받아본 타이 마사지, 티를 얼마를 드려야 할 지 몰라 다같이 고민했던 일, 숙소에서 간단하게 맥주파티를 벌인 것, 망고 스티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패션 후르츠였던 일, 과일 비누를 싸게 사기위해 흥정했던 일, 루프탑 바에 가서 마신 맥주와 칵테일, 카오산 거리에 있던 뮤직 바... 아주대학교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해외에 대한 경험을 늘려주고 지식을 쌓아준다는 취지로 개설되었지만 참여한 학생으로써 본 취지보다 더 큰 추억과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공통점이라고 '아주대학교 학생'인 것 뿐인 사람들이 모여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쌓여지는 유대감과 신뢰감.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 더불어 좋은 친구들을 얻었다.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더욱 참여해보고 싶다. 해외 인턴십같은 프로그램 말이다. 아니면 탐마삿 대학교에서 만난 선배님들처럼 해외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원래부터 해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낮선 환경과 낮선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망설여왔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 미리 일정지를 받았는데, 확실히 현지로 가니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많아 일정이 여러 번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만약 내가 일정을 고려해 할 일들을 생각해 봤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다. 다음에는 좀 더 현지 상황을 염두에 둔 일정을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또한 현지 체험보다 버스에서 있었던 시간이 더욱 길었던 것 같은 기분이다. 버스 시간을 좀 더 감축할 수 있는 일정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아주대학교 국제학부에 바라는 점은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비용문제로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듯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힘들더라도 해외 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토론 주제를 어느 쪽에서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끼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엔 두 번째 주제는 다소 어려웠다. 과가 다 다르고 전공 분야도 아니다보니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나왔는데 다음 번엔 그것보다 조금 쉬운 주제로 내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스쿨버스도 태국인 학생들과 함께 탄다던가 하는 방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할까말까 고민 중인 학우분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당장 신청해라.'이다. 혼자 신청해도 좋고 같이 신청해도 좋다. 혼자 신청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같이 신청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더불어 개인여행으로는 얻기 힘든 현지 대학생과의 만남, 현지 교수님과의 만남 등을 체험할 수 있고 교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다양한 상식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교수님이 먹거리를 나눠 주시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에 대한 부담감을 덜면서도 핵심 관광지는 구경할 수 있으니 몸도 편하고 맘도 편하다. 해외로 나갈때 있어 가장 중요한 비용도 학교에서 지원해줌으로써 부담 없으니 일석무한조다!